

“아이, 가르치지 말고 이해하세요”

광주 아동보호기관들, 21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 노란 리본 만들기·학대 신고 전화 알리기 등 캠페인도

“당신의 관심이 아동 학대를 예방합니다.”

광주지역 아동보호기관들이 이웃들의 관심을 높여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사를 갖는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한선희)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동근)은 ‘2019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21일 개최한다.

19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깥입니다-아이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올바른 양육문화를 확산시키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이를 가르치고 알려줘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모로 양육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문제를 조망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 기금)가 2000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 아동학대예방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샌드아트공연’ 아동권리 현장낭독,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다짐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광주지역 시민들이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대의 전환을 가져오고,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모로 양육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유스퀘어 일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을 위한 노란 리본 만들기, 아동학대 신고전

화(112) 알리기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이 진행된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만으로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 272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9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펑-하’ 국민 정신건강 챙기기 복지부 펑수가 나섰다

‘자이언트펑TV’ 우울증·정신질환 조기발견 중요성 알려

‘펑수 하이’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펑 ‘펑수’가 국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자이언트펑TV’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지난 15일에 EBS1TV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수 68만 3000여명을 자랑하는 펑수는 ‘2030 직통령’(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펑수의 인사말 ‘펑-하’(펑수 하이의 줄임

말)는 유행어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펑수를 통해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더욱 폭넓게 확보하고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전남본부
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집다운 집으로’ 나주 세지면에 천사보금자리 준공

컨테이너 살이 민우 형제에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세탁기·냉장고도 선물

#.9년 전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할머니에게 맡겨진 이민우(14)·이민수(12·가명) 형제는 일정한 주거 없이 고시원, 기도원,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다. 요즘엔 주변 분들의 따뜻한 배려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주택용 컨테이너에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다.

광주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가 함께 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3일 나주시 세지면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본부장, 후원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독자들 후원자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모인 5000만 원은 전남 내 도움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나주시 세지면에서 ‘2019 동서회합 천사프로젝트 천사보금자리’ 준공식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제공)

손길이 필요한 민우·민수 형제를 위한 새로운 집으로 마련됐다. 다리가 나올 정도로 비좁고 작았던 2층 집대에서 지내던 민우·민수 형제에게는 자신들에게 꼭 맞는 집대 2개가 마련됐다. 또 민우와 민수를 위한 분리된 방이 생겼고, 세탁기와 냉장고도 새롭게 전달됐다.

김형삼 나주공방 하안집 대표는 “전남 지역에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민군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 후원에 동참했다”며 “주거민군 아동들이 하루 빨리 집다운 집으로 돌아가 ‘우리집’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유석태 기획본부장은 “대상자 가족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서비스 어땠나요?”

광주 남구, 29일까지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광주시 남구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복지 관련 정

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지난 6월 오픈됐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만족도 조사는 전화조사와 방문조사, 인터넷 링크 조사 등 3가지다.

먼저 복지 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유선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7979봉사단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링크 및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남구는 설문 조사원 112명을 투입해 성별과 연령대, 직업, 거주 지역, 7979센터를 알게 된 경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담당자의 태도, 생활불편 사항 처리 내용에 대한 선호도, 서비스 개선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는 내년도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상록도서관·서구청소년수련관·서구청 여성화장실에 1대씩

광주시 서구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이번 자판기 설치는 지난 8월 ‘광주시 서구 양성평등 기비조’개정으로



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예산을 편성,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는 상록도서관,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청 등 3곳의 여성화장실에 1대씩 설치됐다. 이곳을 방문하는 여성은 누구나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갑자기 시작된 생리에 생리대가 없어서 곤란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며 “여성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의 개념에서 시작한 이번 사업이 주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 11가구에 ‘사랑의 연탄’ 3300장 전달

광주시태권도협회와 함께

광주시 동구는 최근 광주시태권도협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 11가구에 ‘사랑의 연탄’ 3300장을 전달했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태권도협회와 산수1동주민자치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봉사활동은 회원들이 직접 연탄배달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동구는 동절기를 맞아 연탄, 난방유, 이불, 김치 등 맞춤형 물품을 민간자원과 연계 지원해 동구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클래식 타일

지중해 스타일